

한국사회 결혼문화의 변천사(變遷史)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김 태 수 교수
(D.Min., 백석대학교)

국문초록

결혼은 보통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 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결혼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결혼의 주제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필자는 한국사회 결혼문화의 변천사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 현대 결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목차는 첫째, 고려시대의 결혼제도와 혼례문화가 다루어진다. 여기에는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의 결혼제도가 간략하게 언급된다. 둘째, 조선시대의 결혼제도와 혼례문화가 소개되며 셋째, 현대의 결혼문화가 언급된다. 넷째, 한국사회 결혼문화의 문제점이 의미 있는 주제로 다루어진다. 다섯째,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된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의 방식에 의존하며 현대의 결혼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식장의 결혼식과 교회에서 거행되는 결혼식에 참석함으로써 참여와 관찰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정서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가족이 지속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단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이다.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그 전제조건이 되는 결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대의 결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결혼문화의 변천사를 고찰해 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주제어 : 결혼문화, 결혼제도의 변천사, 주자가례(朱子家禮), 종교적 결혼식, 성경의 결혼관

I. 여는 글

어떤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속담에 잘 나타나 있다. 결혼과 관련된 러시아의 속담을 살펴보면 “싸움터에 나갈 때에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에는 두 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에는 세 번 기도하라.”는 표현이 있다. 이처럼 결혼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일이고, 동시에 어려운 선택이어서 배우자 선택이 지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결혼 적령기에 해당되는 젊은이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주요한 이유는 남성의 경우, 보통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졸업한 후 취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경우, 일찍 결혼을 하기 보다는 사회생활을 통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모색하기도 하고, 적합한 조건의 남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혼을 미루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노총각과 노처녀에 해당되는 나이는 몇 살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네티즌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았더니, 남자의 경우는 약 36세이고 여자의 경우는 약 33세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남자의 나이가 16세가 되고, 여자의 나이 14세가 되면 중매인을 통하여 결혼을 할 수 있었다.¹⁾ 요즈음 남자가 1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하고, 여자가 1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조선시대와 현대를 비교해 본다면, 결혼하는 남녀의 평균연령이 현대에 가까울수록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편이다. 현대 여성들의 경우, 취직이 빨리 되지 않으면 시집을 감으로써 취직을 한다고 하여 ‘취집’(취직하는 대신 시집감)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도 현대의 결혼문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번 봄 학회의 주제가 ‘기독교상담과 결혼’ 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숙고하던 중, 필자는 한국의 역사를 통하여 결혼제도와 문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제도나 결혼문화는 연구의 대상이지 상담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상담

학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런 한계점 속에서 이 논문은 한국사회 결혼문화의 변천사를 다루고, 결혼문화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II. 펴는 글

시대별 혼인문화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7세기 이전의 가족형태는 부권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결혼을 하면 부거제(夫居制)였다. 17세기 이후의 가족형태는 장남, 장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로 형성되는 부계직계가족이었다. 조선후기의 가족형태는 부자(父子)중심으로, 딸은 출가외인이 된다. 가족의 원리에 따라 남존여비, 장자우대, 수직적 세대관계로 부계친(父系親) - 남자(男子)-장남(長男)의 가족원리가 정립된다. 이렇게 부계친-남자-장남의 가부장적 가족의 형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변화는 혼인풍속에서의 변화이다. 다시 말하자면, 남성 중심의 가족형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형성의 시작에서부터 남성 중심적인 혼인풍속으로의 변화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혼인거주형태도 변화를 보였다.

그렇지만, 고구려시대에는 여성 중심적인 혼인풍속이 존재하였고, 고려시대에도 그 명맥을 유지해 왔음을 역사적 자료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를 중심으로 혼인문화의 변천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결혼제도의 변천사

1) 고려시대의 결혼제도와 문화

(1) 고려시대

고려(高麗)시대의 혼인풍속을 언급할 때 고구려(高句麗)의 혼인풍속을 언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고구려시대의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

이 고려시대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그 형태가 오랫동안 존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혼인풍속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고구려시대의 혼인풍속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²⁾

其俗作婚姻 言語已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婿屋 暮至女家戶外
自名跪拜乞得就女宿 如是者再三 女父母乃廳使就小屋中宿 傍頓錢帛
至生子已長大 乃將婦歸家
(기속작혼인 언어기정 여가작소옥어대옥후 명서옥 혼지녀가호외
자명궤배걸득취녀숙 여시자재삼 여부모내청사취소옥중숙 방돈전백
지생자기장대 내장부귀가)

위의 한자(漢字) 내용을 필자(筆者)가 현대적 용어로 옮겨본다면, 혼담이 성립되어 혼인할 상황이 정해지면 신부의 집에서는 부모가 살고 있는 큰 집 뒤에 작은 집을 마련하는 데 이것을 '서옥(婿屋)'이라고 한다. 해가 질 무렵 신부의 집 밖에서 신랑 될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름을 말하며 신부와 동숙할 것을 간청한다. 이런 행동을 2-3회 반복하면 신부의 부모가 신랑 될 사람의 말을 듣고 작은 집에 동숙하도록 허락한다. 이 때 신랑은 돈과 비단 같은 폐물(幣物)을 제공한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자녀를 낳아 장성하면 비로소 신랑은 부인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온다.

한편으로 백제(百濟)의 혼인풍속은 '혼취지례약동어화(婚娶之禮略同於華)³⁾'라는 기록(필자의 해석: 시집가고 장가가는 혼인에 대한 혼례는 중국을 따라함으로써 거의 동일함)으로 볼 때, 중국의 혼인풍속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신라(新羅)의 혼인풍속을 살펴보면, 왕족들 사이에서는 혈족결혼(血族結婚)이 유행하였지만, 선비와 백성들 사이에는 이성상혼(異姓相婚)이 실행되고 있었다.⁴⁾

고려시대의 혼인은 신라 이래로 왕족이나 귀족계급의 고위층 사이에 일반적이었던 근친혼(近親婚)이나 혈족혼이 유지되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혼인풍속은 고구려시대의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었다. 고

려의 풍속은 남자와 별거할지언정 여자는 자기 집을 나가지 않아서 마치 데릴사위 제도와 같았다. 즉, 남귀여가(男歸女家)의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서류부가'의 기간이 고구려시대에는 길었지만, 고려시대에는 짧아진 것으로 보인다.⁵⁾

고려시대의 혼인형태는 법제상으로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의 원칙이 확고히 세워져 있었다. 고려사회에서는 다처병축(多妻竝畜)이 불법으로 취급되었고, 그에 대한 처벌이 실제적으로도 이루어졌음을 다음의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⁶⁾ 고려 충숙왕 재임시 대사헌의 고위직에 있었던 연수(延壽)가 국문(鞫問)을 하였는데, 김영보(金英甫)의 동생인 승려 산경(山峯)이 교만 방자하여 대(大)사찰에 머물면서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전체적 흐름 속에서 말한다면, 고려시대의 다처병축은 고려시대 전(全)기간을 통하여 법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았고 오직 고려 말(末)의 사회적 혼란기에 편승해 일시적으로 다처병축의 풍조가 나타난 데에 불과하다.⁷⁾

전통적 혼례 절차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과 고려시대가 끝나기까지 '서류부가혼'이었다.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은 남자가 여자 쪽의 집 서옥(婿屋)에 가서 혼인식을 치른 후 계속하여 여자 쪽의 집에서 살다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결혼방식이다.

2) 조선시대의 결혼제도와 문화

새 왕조의 정치이념으로 성리학을 내세우고, 조선초기의 위정자들은 대대적으로 문물제도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례도 수정을 가하게 되었는데, 그 준거는 중국의 주자가례(朱子家禮)였다.

(1) 주자가례의 혼인의례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그리고 친영(親迎)의 사례(四禮)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① 의혼(議婚):

의혼은 혼인에 있어서 첫 단계로 주혼자(主婚者)⁸⁾가 중매인을 통하여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택하고 양가(兩家)의 주혼자들이 혼인을 구두(口頭)로 약속하는 단계이다. 의혼과 관련하여 주자가례의 혼례편(昏禮篇)에

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⁹⁾

男子年十六至三十 女子年十四至二十 身及主婚者 無期以上喪 乃可成昏
必先使媒氏往來通言 俟女氏許之 然後納采

(남자연십육지삼십 여자연십사지이십 신급주혼자 무기이상상 내가성혼
필선사모지왕래통언 사여씨허지 연후납채)

위의 내용을 해석해 본다면, 남자 나이가 16세에서 30세 이내이고 여자 나이가 14세에서 20세 이내이면 (쌍방의) 주혼자 될 사람이 곧 상(喪)을 당할 경우만 아니라면 혼인이 성사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면) 필히 먼저 중매인을 통하여 (결혼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전달받는다. 그리고 여자 쪽의 허락을 받은 연후에 납채를 보낸다.

다음의 내용은 의혼의 과정인 청혼서와 허혼서의 사례이다.¹⁰⁾

청혼서(請婚書)

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가내 두루 평온하신지요. 저의 둘째 아들 ○○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 짝을 구하던 중(中), 선생님 댁의 따님이 훌륭하다고 하옵고 또 만나 보니 정말 그러하였습니다. 귀 가정과 우리 가정이 사돈의 의를 맺을 것을 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면 저의 집에서는 큰 기쁨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 댁에서 저의 청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삼가 글을 올립니다.

허혼서(許婚書)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답해 여쭙니다. 먼저 가내 두루 평온하시며 선생님께서도 환절기에 기력이 좋으신 듯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저의 첫 자녀 00을 그토록 칭찬하면서 귀하니 저희들은 감히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채택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경사이겠습니다. 예를 갖추지 못함을 선생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오며 삼가 글월을 올립니다.

② 납채(納采)

혼인이 결정되면 신랑 집에서 신랑의 생년월일을 간지(簡紙)에 기록하여 중매인이나 절친한 사람을 시켜 신부 집 주혼자에게 보내어 청혼하고 신부 집에서 받아들이면 약혼이 성립된다. 이 때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것을 사성(四聖) 또는 사주단지(四柱單子)라고 한다.¹¹⁾

신랑의 사주를 받은 신부 집에서는 길성(吉星)이라든지 길일(吉日)을 택하여 백지에 써서 보내는 데, 혼례를 치르기 좋은 날을 선택한다고 하여 택일(擇日) 또는 연길(涓吉)이라고 부른다.

③ 납폐(納幣)

혼례를 치를 날이 결정되면 신랑 집에서는 혼서(婚書)와 혼수(婚需)를 담은 함(函)을 신부 집에 보냈는데 이것을 납폐라고 한다.¹²⁾ '봉치' 나 '송복'이라고도 하는 이 함은 보통 혼수함(婚需函)이라고 부른다. 이 혼수함 속에는 종이를 깔고 혼서지(婚書紙)와 예물을 넣는다. 혼서는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혼인을 했다는 증거인 동시에, 일부종사(一夫從事)의 절개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혼서는 여자 쪽에서 일생 동안 보관하다가 사망한 뒤에는 관(棺) 속에 넣어가는 것이 조선시대의 일반적 풍속이었다. 또한 예물은 보통 청홍(靑紅)의 채단으로 치마 한 갑에 저고리 두 벌이나 치마 두 벌에 저고리 한 벌로 짝이 맞지 않게 넣는다. 그리고 청채단(靑綵緞)과 홍채단을 담은함은 붉은 함으로 싸서 묶은 후, 종이에 근봉(謹封)을 써서 함(函) 보자기 매듭에 봉한다.

④ 친영(親迎):

친영(親迎)의 문자적 의미는 '친하고 가깝게 맞이한다'는 뜻이다. 친영이라는 의식¹³⁾은 신랑 될 사람이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본가(本家)로 가서 혼례를 치르는 것으로 진행된다. 고구려시대 이래로 전통적 혼인풍속인 '서류부가혼'은 신부될 여자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지만, 친영은 신랑 될 남자의 집에서 혼례를 치른다. 그리고 '서류부가혼'은 신랑과 신부가 합방(合邦)한 후에 상견례(相見禮)를 하지만, 친영례의 경우는 혼례를 통하여 상견례를 한 후(後)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한다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

다. 친영의 최초 사례는 조선의 제 3대 왕인 태종(太宗)이 13번째 공주를 친영한 것이 조선시대 최초의 친영사례로 알려져 있다.

친영은 전안례, 교배례, 그리고 합근례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¹⁴⁾ 첫째, 전안례(奠雁禮)는 혼인식의 첫 번째 순서로 신랑이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이다. 기러기는 3가지의 덕목 즉,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킨다는 의미와 짝을 잃으면 결코 다른 짝을 찾지 않으며 또한 상하의 질서를 지키고 날아갈 때도 행렬을 맞추어 앞서가는 기러기가 올면 뒤따르는 기러기도 화답하여 예를 지킨다는 것을 상징한다. 전안례는 기러기의 이런 속성을 본받자는 의식이다.

둘째, 교배례(交拜禮)는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하는 의식이다. 첫 번째 순서인 전안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초례청(醮禮廳)에서 처음으로 상대방을 상견(相見)하게 된다. 상견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서로 상대방에게 맞절을 함으로써 두 사람이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예의를 갖추게 된다.

셋째, 합근례(合巹禮)는 신랑과 신부가 한 표주박을 두 조각으로 나눈

잔(淺)에 술을 따라 미시는 의례이다. 술이 의미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부부로서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며, 표주박에 따라 마시는 술은 부부의 화합을 의미한다. 합근례에서 신랑과 신부는 3회에 걸쳐 술을 나누어 마시는데, 첫째 잔은 지신(地神)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고시례'라는 잔이고, 둘째 잔과 셋째 잔은 표주박에 담아 나누어 마심으로써 부부의 화합을 기원하는 잔이다.

조선시대에 들어 주자가례(朱子家禮)가 가정의례로 권장되면서 친영제(親迎制)가 혼인의 방식으로 권장되고, 친영(親迎)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본가에 가서 혼례를 치르는 것으로 조선중기 이전까지의 습속(習俗)이며, '서류부가혼'의 습속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조선중기부터 고려의 '서류부가혼'과 조선 초기의 친영제가 절충되어 반(半)친영제가 자리를 잡았다. 반친영제(半親迎制)는 조선 중기 이전까지의 고유 풍습을 따랐다. 혼례는 여자의 집에서 행하고, 기간은 삼일 정도로 단축하여, 삼일 후부터는 남자의 집으로 돌아와 혼인생활을 하는 방식이다. 친영제는 조선 3대 태종

이 처음 실천하였고, 반친영제는 조선왕조 13대 명종 재임시 고려시대 입장제와 조선 초기 귀족층의 친영제의 장점을 접목시킨 제도이다.

반친영제(半親迎制)의 존재를 전하는 문서 가운데 주목받는 2개의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⁵⁾

近來士族家 於吉夕 卽依家禮行事者 謂之眞親迎
卽夕就女家交拜合卺 明日謁舅姑者 謂之半親迎
(근래사족가 어길석 즉의가례행사자 위치진친영
즉석취녀가교배근안 명일알구고자 위치반친영)

위의 한문을 필자가 해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근래에 사대부 집안에서는 길일(吉日) 저녁 가례(家禮)에 따라 혼례행사를 치르는 것 이것을 진친영(眞親迎)이라 일컫는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신랑은) 신부될 여자의 집에 가서 서로 상대방에게 절을 하고, 합근의 연회(한 표주박을 둘로 나눈 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 잔치)에 참석한 다음, 명일(名日)에 시부모를 뵙고 인사드리는 것 이것을 반친영(半親迎)이라 한다.

明宗朝 士庶家婚禮 稍變前制 婿初到婦家 婦出而行禮
交拜合卺 明日謁舅姑 爲之半親迎
(명종조 사서가혼례 초변이제 서초도부가 부출이행례
교배합근 명일알구고 위치반친영)

한자의 의미: 조선시대 중기(中期) 명종 때에, 대다수 선비 집안의 혼례는 이전의 제도가 약간 변경되었다. 사위가 처음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부는 나와서 예를 갖추어 서로 절을 하고 합근례를 행한 다음, 명일에 시부모를 뵙고 인사를 드리는 데 이것을 반친영이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고구려 시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서류부가혼'의 입장제(入丈制)와 친영제, 그리고 반친영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서

류부가혼'의 특징은 첫째, 신부될 여자의 집에서 혼인의례를 치를 뿐만 아니라, 서류부가(婿留婦家)의 형식이다. 둘째, 신랑과 신부가 부부로서 동침을 하고 향연을 베푼 후(後), 3일째 되는 날에 혼례를 치른다. 셋째, 혼례가 종료된 후 날짜를 정하여 음식과 노비를 갖추어 구고지알(舅姑之謁)¹⁷⁾을 한다는 점이다. 친영제의 특징이라면 첫째, 신랑이 될 남자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남자 집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한다. 둘째, 혼인 당일에 서로 상견지례를 하고 잡자리를 같이 한다. 셋째, 혼례 다음날 구고지알을 하는데, 이 때 신부 집에서 찬(饌)을 갖추어 시부모를 공궤한다는 점이다. 반친영의 특징은 첫째, 신부 될 여자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되, '서류부가혼'에서 3일째에 행하던 상견지례를 혼인 당일에 한다. 둘째, 혼례를 치르고 3일 이후 적당한 날짜를 잡아 행하던 구고지알을 혼인 다음 날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서류부가혼'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이다. 결국 반(半)친영이 '서류부가혼'과 다른 점이라면, 신랑과 신부의 상견례를 혼인 당일에 하고 시부모에 대한 인사(구고지알)가 빨라졌다는 것 이외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반(半)친영이라기 보다는 '서류부가혼'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근거로 혼인 풍속의 변천사를 정리해 본다면, 고려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입장제(入丈制)의 형태가 유지되었다. 그리고 조선 초기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친영제(親迎制)의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조선 중기 이후(以後)는 반친영제(半親迎制)로 변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3) 현대의 결혼(식) 문화

일본과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신식(新式)의 결혼식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전통 혼례식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피로연이 혼인잔치를, 웨딩드레스가 전통 혼례복을, 예식장이 여자의 집을 대체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신식 혼례가 전통 혼례를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전통 혼례에서 행하여 지던 혼담, 사주, 택일, 납폐, 혼례식, 그리고 우귀(于歸) 등의 절차는 오늘날에도 관행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 전통 혼례라는 것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 정착된 가례와 우리의 전통의례가 복합된 고유의 혼인풍습으로 보통 육

례(六禮)를 말한다.¹⁸⁾

첫째, 혼담(婚談)은 남자 측과 여자 측이 혼인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이다. 남자 측에서는 중매쟁이를 통하여 청혼을 하고, 여자 측에서는 혼인을 허락하는 과정이다. 둘째, 사주(四柱)는 사성(四星)이라고도 하는데, 신랑의 생년, 생월, 생일과 생시(生時)를 기록하여 신부 측에 보내는 절차이다. 사주를 보내는 것은 남녀가 혼인한 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예측하는 일을 신부 측에 맡기는 것이고 혼인 날짜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택일은 남자의 사주를 받은 후, 여자 측이 좋은 날짜를 가려 혼인예식의 날로 정하고 남자 측에 통보하는 절차이다. 연길(涓吉)이라고도 부르며 좋은 길일(吉日)을 골랐다는 뜻이다. 넷째, 납폐(納幣)는 남자 측에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성의껏 준비한 예물을 보낸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혼례식은 남자가 장가드는 의식으로 중국과는 달리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혼인예식을 치르고 장인과 장모의 집에 들어간다. 보통 '대례(大禮)'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평생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의례라는 뜻에서 그렇게 부른다. 여섯째, 우귀는 '우례(于禮)'라고도 하는데 신부가 혼례를 치른 후(後) 시집에 들어가는 절차이다. 장기적으로는 첫 아이를 출산한 후에 가거나, 단기적으로는 첫날밤을 지낸 후에 신랑의 집으로 간다.

이렇게 전통 혼례의 절차가 약간씩 차용되는 신식의 결혼식이 현대 한국 사회 결혼식의 대략적 모습이다. 현대식 결혼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남자 측과 여자 측의 혼담, 맞선, 교제, 약혼, 혼수준비, 예식의 준비, 예식(결혼식과 폐백), 신혼여행과 혼인신교의 순서를 거친다. 여기서 혼담, 맞선, 교제와 혼인신교는 혼인에 준하는 절차에 속한다.

현대식 결혼식은 흔히 예식장에서 치러지는데, 혼례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¹⁹⁾

- (1) 사회자의 안내방송: 사회자는 혼례의식이 시작됨을 알린다.
- (2) 촛불 점화: 양가의 어머니가 식단 위에 있는 촛불에 점화한다.
- (3) 개식 선언: 사회자가 개식을 선언한 후, 주례 선생님을 소개한다.

(4) 신랑과 신부의 입장: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혹은 신랑 먼저, 신부(신부측 가족대표와 함께)의 순서로 입장한다.

(5) 신랑과 신부는 주례 앞에 가서 인사하고, 하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랑은 왼쪽, 신부는 오른쪽에 선다.

(6) 신랑과 신부의 맞절: 주례의 지시에 따른다.

(7) 혼인 서약: 주례가 서약서를 읽고 물으면 신랑, 신부는 대답한다.

(8) 성혼 선언문: 주례가 낭독하면 그 결혼은 성립된 것으로 선언된다.

(9) 주례사: 신랑과 신부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교훈적 말씀을 해 준다.

(10) 내빈끼 인사: 신랑과 신부는 내빈들을 향하여 부부로서의 첫 인사를 한다.

(11) 신랑과 신부의 행진: 주례는 신랑과 신부에게 행진을 호령한다.

(12) 사회자는 폐식을 알린다.

(13) 사진촬영

(14) 폐백(幣帛): 예식이 끝난 후, 곧바로 폐백실로 가서 폐백을 드린다. 먼저 신랑 측의 어른에게 신랑과 신부는 2회 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 시부모는 절을 받고 술을 받아 마시며 대추를 집어 던져주고 선물이나 돈을 봉투에 넣어 신혼여행 비용으로 주기도 한다. 신랑의 형제나 자매와 항렬(行列)이 같은 형제들은 맞절을 한다.

(15) 하객접대(피로연): 결혼식이 끝나면 결혼의 과정에서 격려하고 도움을 주었던 분들과 축하객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피로연(披露宴)을 베푼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예식장에서 치러지는 일반적 혼례의식의 순서이고, 신앙심이 있는 경우는 종교적 의식에 따라 엄숙한 혼례를 올리는 경우도 많다. 종교적 의식에 따른 혼례의 유형은 기독교식, 불교식 그리고 천주교식이 있다.

최근에 치러진 기독교식 혼례의 일반적 순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⁰⁾ 먼저, 주례자가 등단하고 개식사(開式辭)를 한 다음,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고 찬송가, 기도 그리고 성경봉독을 통하여 예배형식으로 진행한다. 그런 다음 주례자는 설교 또는 주례사를 통하여 신랑과 신부에게 당부하는 말을 하

고, 결혼을 서약하게 하며, 예물을 교환하게 한다. 이어서 주례자는 성혼기도를 올리고 성혼을 선언(또는 공포)한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를 위한 축가(祝歌)가 있으며, 주례자는 축복의 기도를 드린다. 또한, 양가의 부모님과 내빈들에게 신랑과 신부가 인사를 드리고, 폐회 찬송을 부른 다음, 신랑과 신부의 행진으로 혼례의식이 끝난다.

또한, 현대식 결혼의 형태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²¹⁾ 첫째, 테마웨딩(theme wedding)은 주제가 있는 예식 형태로써 시네마(cinema)웨딩, 플라워(flower)웨딩, 그리고 캔들(candle)웨딩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맞춤형웨딩은 소비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신세대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예식을 연출해 주는 것이다. 셋째, 이벤트(event)웨딩은 선상(船上)웨딩, 카페웨딩, 경기장웨딩과 같이 전문 예식장을 탈피하여 장소와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현대식 결혼식의 형태도 다수 존재하며 점점 더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예를 들자면, 물속에서 거행되는 수중(水中)결혼식, 산에서 진행되는 산상(山上)결혼식,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진행되는 사이버(cyber)결혼식도 등장하고 있다.

2. 한국사회 결혼문화의 문제점

1) 함(函) 팔기의 잘못된 거래²²⁾

함 보내기는 본래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게 청혼비단, 치맛감 2벌과 함께 혼서지(婚書紙)를 보내는 의식이다. 근래에는 신부의 사철의류, 내의, 화장품과 기타 폐물까지 대형 가방에 가득 채워 보내는 추세이다. 심지어 함진아버가 함 값을 흥정하고 돈을 밭로 밟고 신부 집에 들어가는 행태로 인하여 신부 집은 예상한 것 이상으로 경제적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함진아버의 경우, 결혼해서 첫아들을 낳은 사람이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풍토 속에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선호(男兒選好)사상이 잔존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과도한 혼수(婚需)의 요구

전통사회의 혼인에 있어서 혼수는 검소한 수준에 머물렀다. 고구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혼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³⁾ 예를 들어, 고구려 시대에 신랑 될 남자의 집에서 결혼을 앞두고 신부 집에 보내는 것은 돼지고기와 술(alcohol)이었다. 이런 혼인풍속은 고려시대 후기까지 성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시대 납폐(納幣)에 예물로 보낸 품목은 신부의 청홍단, 혼서지, 집안과 지방에 따라 상징되는 물건 또는 폐물(幣物)이나 옷감 등등 이었다. 대체로 전통사회에서의 혼수는 예단, 예물의 형태로써 예의나 축복과 같은 상징의 의미였고, 현대와 같은 물질의 교환과 신분과시의 표상은 아니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통사회에서 검소하고 소박했던 수준의 혼수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물질만능주의의 팽배와 사회적 신분 과시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3) 거대하고 화려한 예식 규모

고구려 시대의 검소하고 소박했던 혼인예식의 규모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거대하고 화려하게 변해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3년 조사한 결혼문화의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비용이 평균 9,088만원이었다.²⁴⁾ 위의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주택마련 비용이 6,226만원으로 68.5%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혼수비용은 1,819만원으로 20%의 비율이었으며, 혼인의례 비용은 1,000만원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결혼 비용의 부담을 살펴보면, 부모가 61.6%를 부담하고, 본인의 부담은 38.4%에 불과했다. 또한 이 비용은 1989년 약 1,800만원의 5배정도로 증가하였고, 2003년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31배 수준에 해당된다. 최근 필자의 선배 목회자의 아들이 결혼을 하여 결혼 비용을 물어본 결과, 주택 전세자금으로 약 1억 3,000만원, 혼수와 혼인의례 비용으로 약 3,000만원으로 약 1억 6,000만원의 결혼비용이 들어간다는 대답을 들었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과 혼수비용의 증가로 결혼비용은 점점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

4) 남녀차별의 관행

이런 관행은 특히 중매결혼(仲媒結婚)의 경우에 발견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신부 값은 신랑 측으로 이전되는 신부의 출산력, 노동력 그리고 성적(性的) 가치에 대한 보상적 의미로서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지불하는 돈이다. 지참금은 신부가 결혼하면서 신랑에게 가져가는 재화나 화폐이다. 신랑 값은 결혼으로 인하여 신부의 사회적 신분 상승이 보장되는 유망한 직종에 종사하는 신랑에게 신부 측에서 지불하는 물질적 보상을 말한다.

5) 신랑 친인척 중심의 폐백(幣帛)

예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사회를 향하여 힘찬 행진을 함으로써 혼인의례가 끝난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랑의 부모와 친인척 그리고 신랑의 형제·자매들에게 폐백을 드린다. 그런데 신부의 부모나 형제들은 폐백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 본다면, 한국 사회는 아직도 가부장적(家父長的) 전통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런 점은 불공평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6) 폐쇄적(閉鎖的)인 계층간 혼맥(婚脈)

한국사회에서 상류층인 100대 재벌가의 혼인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철저하게 가문과 가문 간의 혼인으로써 상류층의 인구를 제한하는 폐쇄적인 혼맥을 유지하고 있다.²⁵⁾ 100대 재벌가 총수의 사돈들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과 차관, 다른 재벌 및 계열사 임원, 국회의원, 사법계과 군(軍)장성, 학계, 언론계, 금융계 그리고 의료계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상류층의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을 통한 계급적 유대구조의 정착과 확장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하여 노골적으로 상류층의 혼사만을 전담하는 전문중매꾼들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광을 받게 되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상류층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의 도움으로 유력한 배우자를

만나지만, 하류층의 자녀들은 기회자체가 주어지기 어렵다. 설령 기회가 찾아온다 해도 상대방의 부모와 가문에 의하여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도 하류층의 자녀는 결혼식을 올릴 비용조차 없어서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가거나 동거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

3. 결혼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또는 방향제시)

1) 함(函) 팔기의 잘못된 거래에 대한 해결방안: 함 팔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바람직한 아이디어(idea)는 신랑의 친구들이 함 팔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신랑이 직접 함을 신부 집에 전달하는 것이다.²⁶⁾ 결혼문화에서 함 팔기는 고유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잘못된 관행이라고 판단된다면 신랑과 신부 집에서 서로 상의하여 과감하게 생략해 버릴 수도 있다.

2) 과도한 예단의 요구: 과다혼수의 문제는 빚을 지면서까지 모든 격식은 갖추어야 한다는 한국의 체면문화(體面文化)가 빚어내는 현상이다. 해결방안은 혼수문화에 대한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반성과 새로운 자리매김이 시도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건전한 혼수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⁷⁾ 첫째, 신랑과 신부의 경제력을 합한 후, 혼수의 예산과 비용을 맞춘다. 둘째, 신랑과 신부의 예물은 상징적인 기념품으로 하나씩 마련한다. 셋째, 예단은 시부모와 친정 부모를 위하여 옷을 한 벌 씩 준비하고, 양가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간단한 선물을 준비한다. 넷째, 살림살이는 침구류, 살림도구, 그릇 종류를 마련한다. 다섯째, 결혼식 장소에 따라 혼인잔치의 규모를 정하고 음식을 계획한다. 여섯째, 예물과 예단, 살림살이와 결혼식 비용의 총계가 혼인 당사자의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곱째, 부조(扶助) 또는 부모의 원조(援助)는 통장으로 만들어 주택마련에 사용한다.

3) 거대하고 화려한 예식 규모: 오늘날은 혼례의 참석범위가 일가친척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직장관계로 아는 사람들까지 넓어지고 있다. 한국소비

자보호원이 제시하는 건전한 결혼문화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²⁸⁾

첫째, 혼례식의 하객을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참석할 하객을 사전에 예약하는 관행을 정착시킨다. 둘째, 일정액 이상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부모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셋째, 결혼비용의 마련을 위한 장기 저리(低利)의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공공기관들의 무료 결혼식장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혼례 과소비문화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결혼에서 영향 받는 바가 크므로, 사회지도층 가족의 결혼의 경우는 비용과 하객의 수에 대하여 신고제 도입을 관련기관에 건의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권장한다고 해도 실천가능성에 의문이 있고,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강요하기에는 한국의 문화나 정서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남녀차별의 관행

결혼에서 남녀차별의 관행에 대한 해결방안은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결혼문화의 정착이다. 남녀차별의 평등화를 위해서는 첫째, 한 여성이 한 남성의 집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모두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결혼의 의미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창세기 2:24)이다.²⁹⁾ 이 성경의 내용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³⁰⁾ (1) 부모를 떠남(leaving): 공간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로서 공적이고 합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2) 아내와 연합함(being joined): 이 표현의 의미는 마치 2장의 종이를 풀로 붙이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3) 한 몸을 이룸(Becoming one):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또는 성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음을 내포한다. 진정한 의미의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하나의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둘째,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경우 자녀의 결혼을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태도는 되도록 자제하고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혼의 주체적 대상은 자녀들이지 부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성인이 된 자녀들 스스로도 결혼의 주체가 되려는 태도를 확립해야 한다. 자녀들이 결혼의 주체적 존재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결혼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³¹⁾

(1) 결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내가 결혼하려는 동기는 무엇인가? (3) 결혼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대는 무엇인가? (4)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5) 행복한 결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7) 나의 결혼생활의 모델은 무엇인가?

5) 신랑의 친인척 중심인 폐백

새로운 문화로서 '폐백 함께 드리기'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³²⁾

(1) 양가의 어른들을 모시고 한꺼번에 폐백을 드리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폐백시간이 길어지면 신혼여행을 떠나야 할 신랑과 신부의 마음이 급해지기 쉬운데, 이런 방법이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신랑 친인척 중심의 폐백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2)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좋은 방법은 시대 어른께 먼저 폐백을 드리고, 다음으로 친정 어른께 폐백을 드리는 것이다.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면 시아버지는 덕담과 함께 자손대대로 번성하라는 의미로 대추를 던져 준다. 그러면 신부는 치마폭에 얼른 받아 담는다. 그런 다음에 친척들께도 절을 함으로써 예의를 갖춘다. 윗분들께는 절을 하지만, 향렬이 같은 형제와 자매 사이에는 서로 맞절을 한다. 시대의 어른과 친인척에 대한 순서가 끝나면 친정의 부모님도 모셔 와서 절을 올림으로써 폐백을 마무리할 수 있다.

6) 폐쇄적인 계층 간(間) 혼맥(婚脈)

아직도 한국사회에는 결혼을 통하여 서로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경향이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으로 상류층인 집안의 딸을 결혼시킬 때 법조인이나 전문직의 사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유력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필요에 의하여 정략적으로 자녀들을 혼인시키는 정략결혼도 있다. 이런 결혼의 특징은 부모들이 일정한 자격과 지위를 갖추지 못하면 자녀들이 순수하게 사랑해도 결혼으로 결실을 맺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혼인에 있어서 계층 간의 폐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득권층 부모들의 사고방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능력과 인품이 검비된 사람이라면 그 개인을 높이 평가하고, 그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과 가능한 한 직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사고(思考)의 전환이 필요하다.

III. 닫는 글

이상으로 한국사회 속에서 결혼문화의 변천사와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결론부분에서 필자는 고구려시대 '서류부가혼'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적용점에 국한(局限)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고구려시대의 혼인풍습이었던 '서류부가혼'의 장점을 설명한다면, 신랑 될 남자 쪽의 장점은 결혼하는 해(year)에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혼례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신부될 여자 쪽의 장점은 신부의 친가에서 약 1년 내외를 거주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고부간의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과 첫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류부가혼'의 단점이라면, 여자 쪽의 경우 오늘날과 다르게 주택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신부나 그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고 그로 인하여 혼례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구려시대 '서류부가혼'을 현대사회에서도 적용한다면, 신랑과 신부 쪽의 부담 감소로 결혼의 성혼율(成婚律)이 증가할 것이다. '서류부가혼'에서는 신부 측이 집을 마련하는데, 그 집은 서옥(婿屋)이라고 하여 작은 집을 의미하였다.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신부될 여자 쪽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의 전세나 월세를 1년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혼례비용은 평균 약 9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없다면 결혼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고(高)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날은 검소한 혼례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끝으로 결혼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결혼의 목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본다면 첫째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창 2:18)이고, 둘째 인류의 생존(창 1:28)을 위함이며, 셋째 경건한 자손(말 2:14-15)을 얻기 위한 방편이고, 넷째 간음을 방지(고전 7:2)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다섯째 완전한 만족(잠 5:15)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결혼제도와 결혼문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문화에 대하여 기독교상담을 시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주제들은 연구의 대상이지 상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결혼제도와 혼례문화에 대하여 통시적(通時的)으로 고찰해 보았다는 것이 본고의 공헌점이라는 것을 밝히고,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기를 바라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김인옥. 『가정의례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총서(제 7권)』. 서울: 교문사, 1990.
- 박명희. 『한국의 생활문화』. 서울: 교문사, 2003.
- 박희수. 『결혼』. 서울: 동아일보사, 2007.
- 박희창. 『관혼상제와 그 뿌리』. 서울: 동신출판사, 2007.
- 서병숙 외 3인. “오늘의 혼례문화 그 진단과 방향 모색: 혼례관행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 가정생활 개선 진흥회 제2회 심포지엄(1997): 17-60.
- 성화경. “건전 혼례모델을 위한 제언”. 한국 가정생활 개선 진흥회 제2회 심포지엄(1997): 79-83.
- 옥선화 · 정민자 · 고선주. 『결혼과 가족』.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8
- 이정우 · 김명자 · 계선자. 『현대결혼과 가족문화』.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국, 2002.
- 이기숙 외 6인. 『결혼의 기술』. 서울: 신정, 2001.
-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서울: 일지사, 1997.
- 정현숙 · 유계숙 · 최연실. 『결혼학』. 서울: 도서출판 신정, 2003.
- 최외선 외 9인. 『결혼과 가족』. 대구: 도서출판 정림사, 2003.
- Cargan, Leonard. *Marriages and Families: changing relationship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1991.
- Collins, Gary R.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Illinois: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2007.
- .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피현희 · 이해련 공역. 『크리스찬 카운슬링』.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0.
- Worthington Jr., Everett L. *Counseling Before Marriage*. 김창대 역. 『결혼 예비 상담』.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 . *Marriage Counseling: A Christian Approach to Counseling Couples*. 김병오 역. 『부부상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후주]

- 1)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서울: 일지사, 1999), 136.
- 2)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총서(제 7권)』(서울: 교문사, 1990), 229. 삼국지 위서(魏書) 고구려전(高句麗傳) 재인용.
- 3) '혼취지례약동어화' 를 필자가 옮겨본다면, 시집가고 장가는 혼인에 대한 혼례는 중국을 따라함으로써 거의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 4)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총서(제 7권)』, 230.
- 5)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총서(제 7권)』, 231.
- 6)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34.
- 7)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53.
- 8) 조선시대의 주혼자는 그 역할이 컸다. 왜냐하면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주혼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주혼자는 보통 한 집안의 가장(家長)이 맡았지만 반드시 가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주혼자는 일차적으로 조부모(祖父母), 부모와 외조부모에 이르는 근친(近親)이 맡는 것이 상례였다. 그리고 주혼자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맡았지만, 남자만이 담당하는 것도 아니었음을 조선시대의 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 9)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136.
- 10) 최외선 외 9인, 『결혼과 가족』(대구: 도서출판 정림사, 2003), 165.
- 11) 박희창, 『관혼상제와 그 뿌리』(서울: 동신출판사, 2007), 39-40.
- 12) 박희수, 『결혼』(서울: 동아일보사, 2007), 105.
- 13)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119-20.
- 14) 이기숙 외 6인, 『결혼의 기술』(서울: 신정, 2001), 257.
- 15)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145.
- 16)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145-46.
- 17) '구교지알' 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알현하고 인사를 드린다는 의미이다.
- 18) 박명희, 『한국의 생활문화』(서울: 교문사, 2003), 42-43.
- 19) 최외선 외 9인, 『결혼과 가족』, 168.
- 20) 이 내용은 최근에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올린 박 H.J.군과 한 M.H.양의 혼례의식을 대략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본고에서 천주교식과 불교식의 사례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신랑과 신부 또는 신랑과 신부의 부모 쪽의 신앙심이 돈독한 경우는 종교적 혼례의식을 통하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 21) 김인옥, 『가정의례연구』(과주: 한국학술정보, 2007), 206.
- 22) 이정우 · 김명자 · 계선자, 『현대결혼과 가족문화』(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국, 2002), 125.
- 23) 옥선화 · 정민자 · 고선주, 『결혼과 가족』(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8), 82-83.
- 24) 옥선화 외 2인, 『결혼과 가족』, 84.
- 25) 이기숙 외 6인, 『결혼의 기술』, 281.
- 26) 이기숙 외 6인, 『결혼의 기술』, 276.
- 27) 옥선화 외 2인, 『결혼과 가족』, 86.

- 28) 이기숙 외 6인, 『결혼의 기술』, 269-70.
- 29) 창세기의 본문에 대한 영어성경(NIV)의 표현은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y will become one flesh.”(Genesis 2:24)이다.
- 30)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Wheaton: Thomas Nelson Publishers, 2007), 546. 이 책에서 Collins는 97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기독교 상담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 31) 정현숙 · 유계숙 · 최연실, 『결혼학』(서울: 도서출판 신정, 2003), 432. 이 책은 1998년 결혼학개론이라는 제목으로 상명대학교에서 처음 출판하였다. 그 후에 기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여 새롭게 출간된 결혼에 관한 개론서이다.
- 32) 이기숙 외 6인, 『결혼의 기술』, 285-86.

【 Abstract 】

A Study on change history of marriage system, problem and solution to negative custom of wedding ceremony in Korean society

Kim Tae Soo
(D.Min., Baeseok University)

According to the Russian proverb, it says that “When a person goes out to fight, pray one time. When the person goes to the sea, pray two times. And when the person marries, pray three times.” Like this, marriage is a very significant issue to everyone and a very difficult choice simultaneously.

In this thesis the writer investigated the changes of Korean marriage culture historicall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wedding culture, and presented effective solutions to it.

Through this thesis the writer dealt with the following items. Firstly, this thesis introduced marriage system and wedding culture of Korea dynasty. Second, it explained marriage culture regarding ‘Chosun’ dynasty. Thirdly, it said the modern wedding culture additionally. Fourth, it included the issues of wedding culture in Korean society. Fifth, it involved various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wedding culture which dealt with in the previous pages.

The method of study of this thesis depended on reference books and was the method of participation and observation by attending a wedding ceremony so as to explain the current wedding culture. Finally, the writer wants to explain the biblical instruction concerning the issue of marriage: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y will become one flesh.” (Genesis 2:24)

Key words: marriage culture, change of marriage system, religious wedding ceremony, biblical viewpoint of marriage, current wedding ceremony